

위해서는 향후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

P-4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자궁내막의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-A mRNA의 발현 양상

최정원 · 전균호 · 홍석호 · 이영진 · 나희영 · 이지윤 · 이향아
김성훈 · 채희동 · 김정훈 · 김규래* · 강병문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학교실, 병리학교실*

Background & Objectives: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자궁내막 자체의 일부 유전자 발현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자궁내막증을 발병시키거나 불임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. 본 연구는 강력한 분열촉진물질로 여러 조직에서 세포의 성장과 맥관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-A (platelet-derived growth factor-A, PDGF-A) mRNA의 발현 양상을 자궁내막증 환자의 자궁내막에서 분석하고 이를 대조군과 비교하고자 고안되었다.

Method: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을 통하여 자궁내막증으로 확진된 환자 32명과 자궁내막증이 없고 가임능력이 확인된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모든 환자들의 자궁내막에서 RNA를 추출, 역전사시킨 다음,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하여 PDGF-A 유전자의 발현량을 GAPDH의 발현량에 대한 상대적 수치로 표준화하여 비교, 분석하였다.

Results: 모든 생리주기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와 증식기 결과를 볼 때 자궁내막증군과 대조군의 자궁내막에서 PDGF-A 유전자의 발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그러나 분비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자궁내막증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PDGF-A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(0.139 ± 0.027 vs. 0.069 ± 0.012 , 평균 \pm 표준오차, $p<0.05$). 6개의 생리주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, 모든 주기에서 환자군과 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분비기 중기에서는 자궁내막증군에서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(0.109 ± 0.041 vs. 0.066 ± 0.014 , $p=0.09$).

Conclusions: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궁내막증 환자의 자궁내막에서 분비기에 PDGF-A 유전자의 발현이 가임능력이 확인된 대조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러한 소견은 자궁내막증이 착상 장애와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P-5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자궁내막의 섬유아세포 성장인자-2, 표피 성장인자 mRNA의 발현 양상

최정원 · 전균호 · 홍석호 · 이영진 · 나희영 · 이지윤 · 이향아
김성훈 · 채희동 · 김정훈 · 김규래* · 강병문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학교실, 병리학교실*

Background & Objectives: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자궁내막 자체의 일부 유전자 발현에 있어